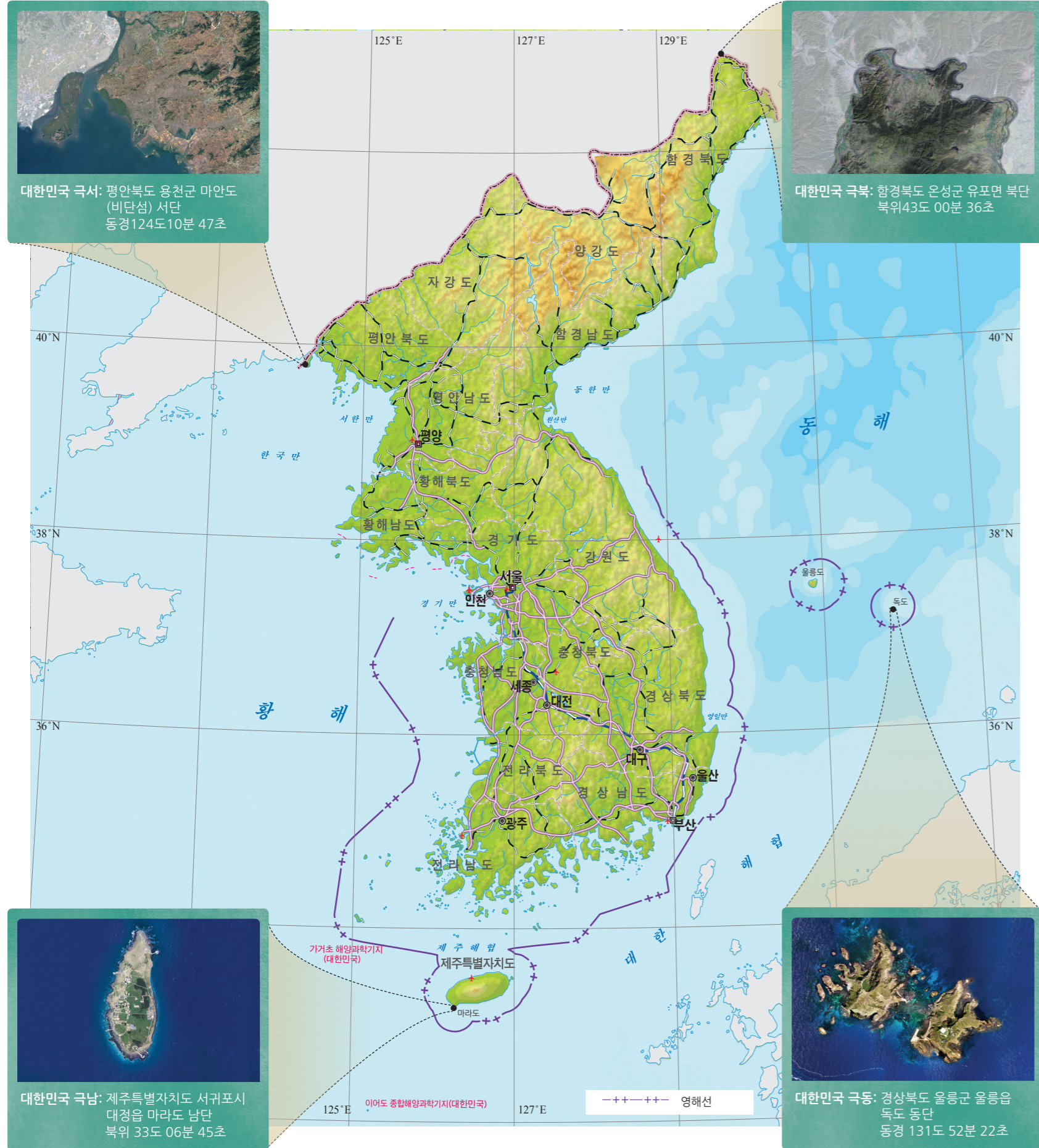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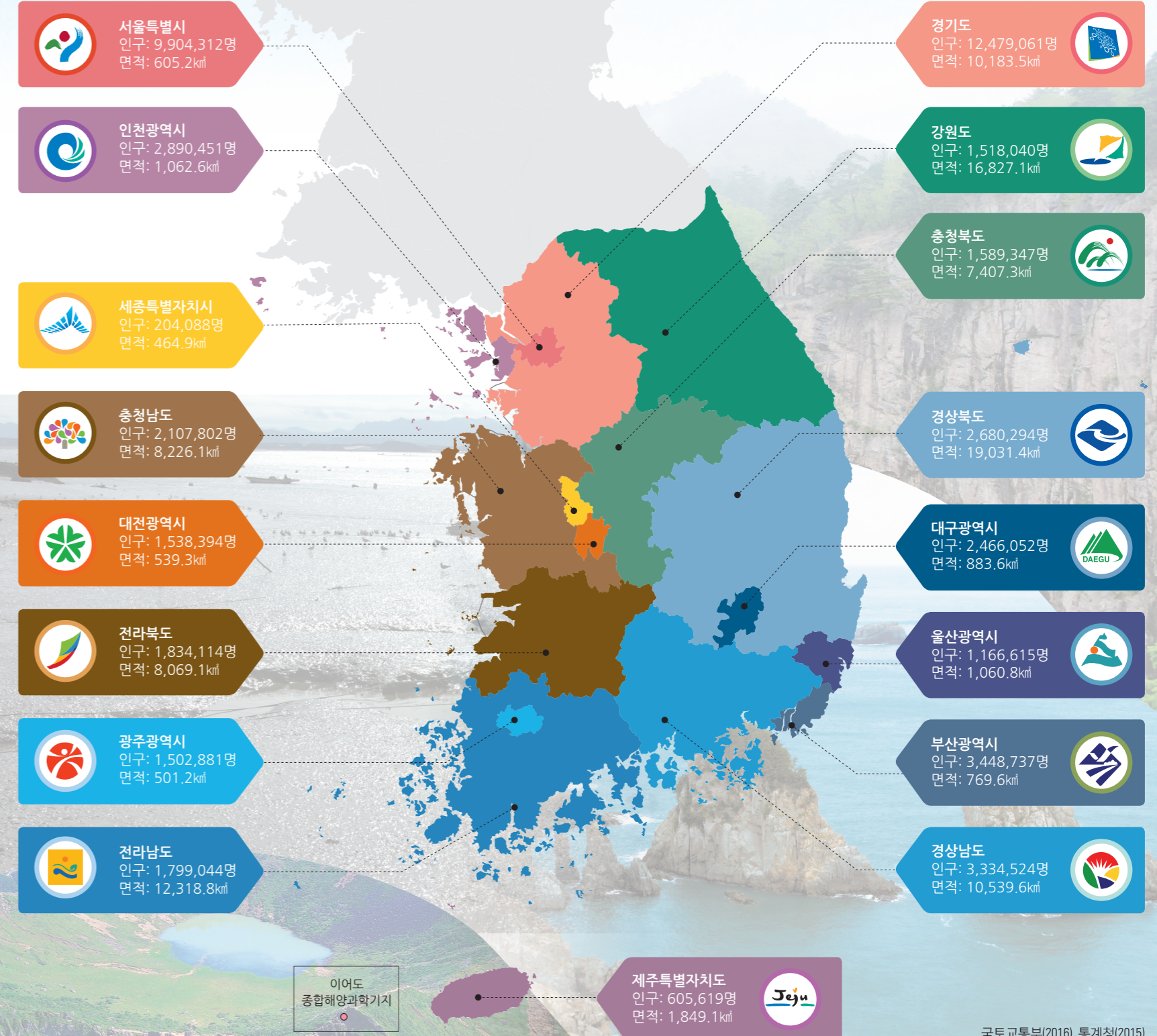
대한민국의 영토와 영해

대한민국의 극단



대한민국의 광역 자치 단체

면적: 223,433km²(남한 100,339.5km²)
인구(남한): 51,069,375명
행정 구역: 1특별시, 6광역시, 1특별자치시, 8도, 1특별자치도



국토교통부(2016), 통계청(2015)

우리 땅 독도

독도 지형도



독도의 사계절



독도 전경

독도는 한반도의 부속 도서로서 대한민국 동쪽 끝에 있다. 동도와 서도의 두 섬을 포함해 89개의 작은 섬으로 이루어져 있다.

독도는 역사적으로 삼봉도(三峰島), 가지도(可支島), 우산도(于山島), 자산도(子山島), 석도(石島)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렸다. 현재의 지명은 독도(獨島)이다. 대한 제국은 1900년 '칙령 제41호'를 공포하여 독도가 울도군(울

도)의 관할 구역임을 분명히 하였고, 울도 군수로 하여금 독도를 통치하도록 하였다.

독도가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라는 사실은 일본 측의 문헌에도 나타난다. 17세기 후반 조선과 에도 막부 사이에 울릉도 주변 불법 어로 행위를 둘러싼 교섭이 진행되었는데, 이를 '울릉도쟁계'라고 한다. 이 결과 에도 막부는 1695년 12월 25일 "울릉도(죽도)와 독도(송도)

모두 [일본의] 뫇토리 번에 속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일본인들의 울릉도 방면의 도해를 금지하였다.

또한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것은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서 재확인되었다.

독도의 생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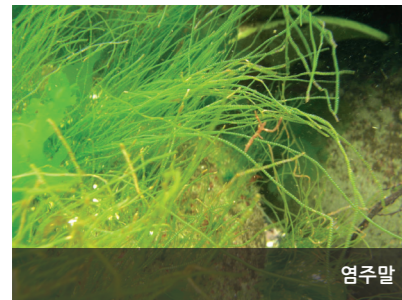
밭고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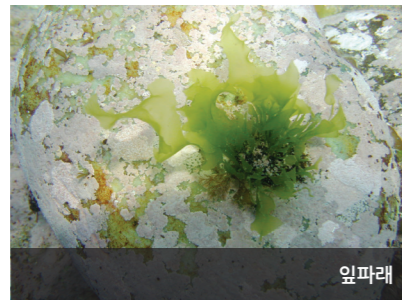
보라성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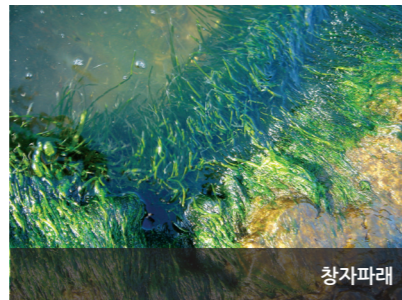
보말고둥



염주말



잎파래



창자파래



해국



흑비둘기



진홍기슴



바다제비



괘이갈매기



섬괴불나무



사철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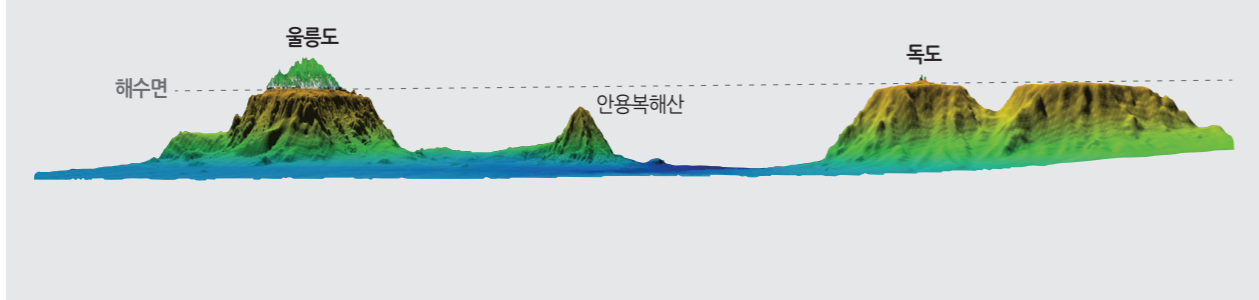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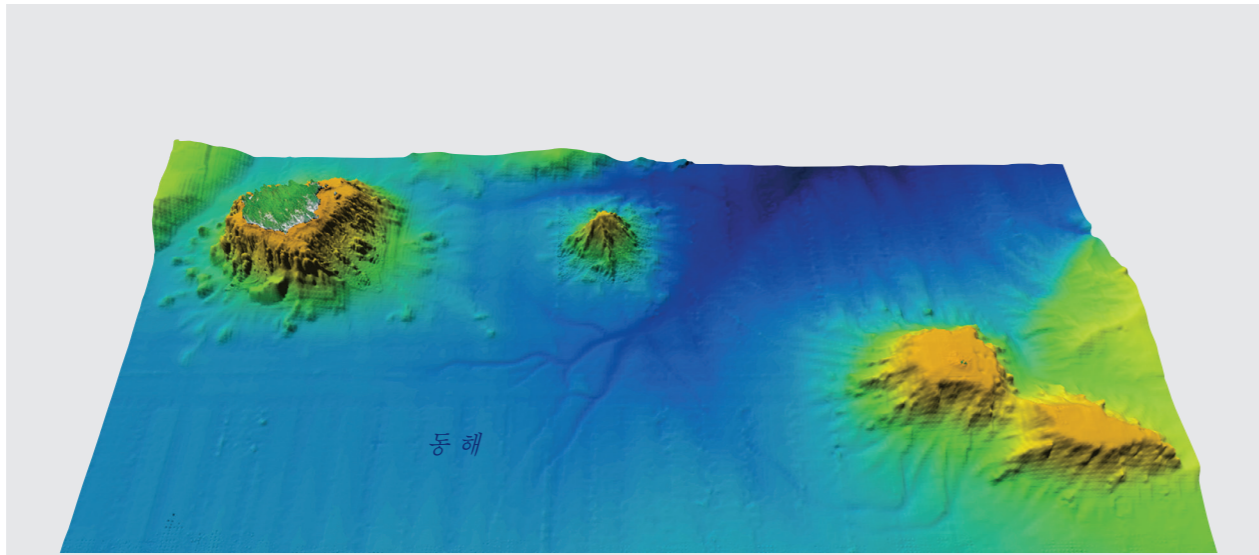


번행초



선령이밥

독도 주변 3차원 해저 지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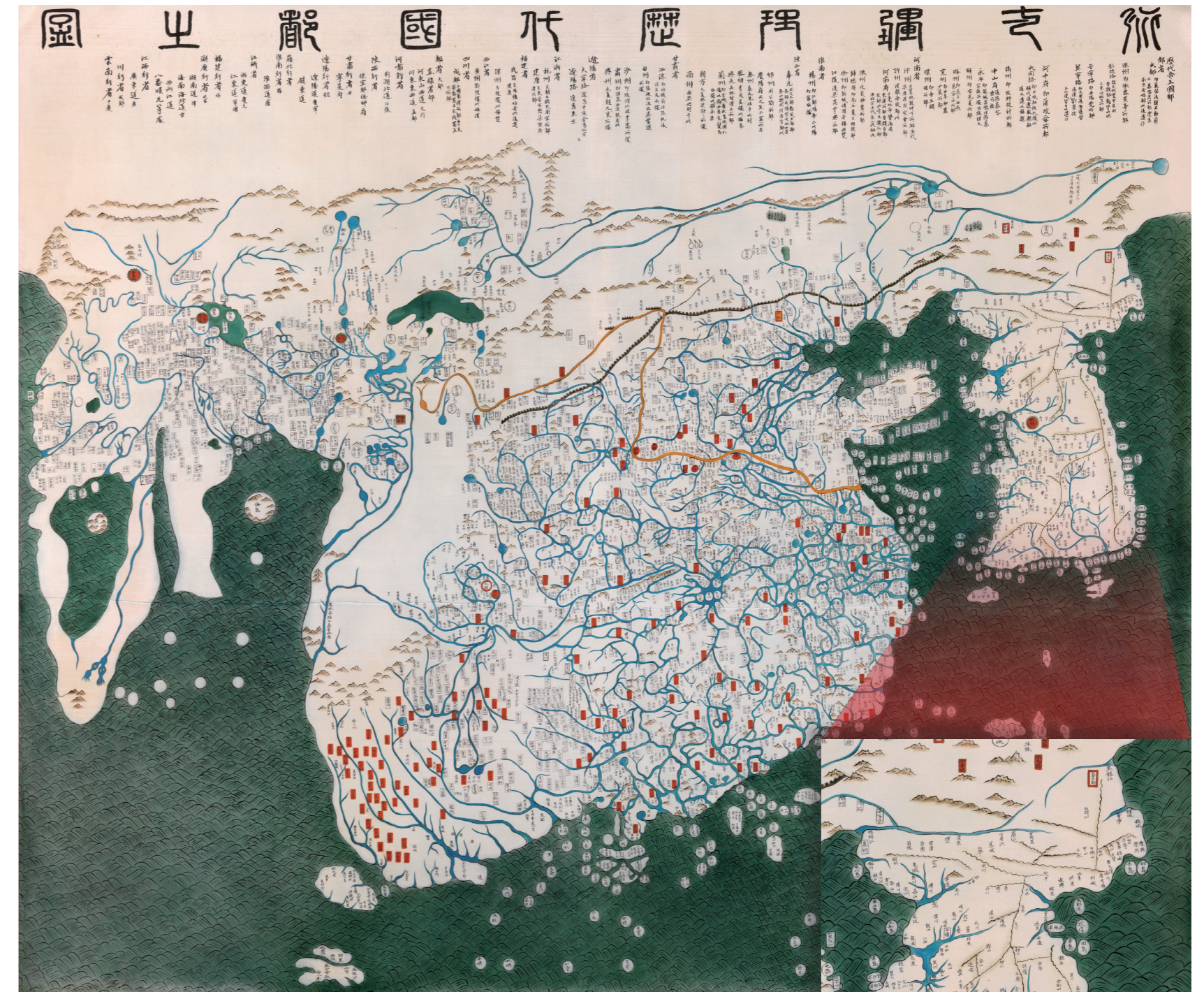
독도는 동해 2,000m 아래에서 분출된 용암이 굳어져 형성된 화산섬이다. 형성 시기는 대략 460만 년 전부터 250만 년 전 사이로 울릉도보다 먼저 형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독도는 최고 높이가 2,000m가 넘고, 하부 지름이 30km에 이르는 커다란 화산의 일부이다.

한류와 난류의 교차로인 독도의 주변 해역은 동식물 플랑크톤이 풍부하며, 육지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인간 활동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아 청정 수역을 이루고 있다. 먹이가 풍부한 독도는 철새 이동 경로상 중간 피난처 및 휴식처로서 역할을 한다. 2013년에는 73종

의 새가 이곳을 피난처와 휴식처로 사용하였는데 이 가운데 4종은 멸종 위기종이었다. 이처럼 독도는 우리나라 생물의 기원과 분포를 연구하는 데 매우 중요한 곳이다.



우리나라 고지도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 混一疆理歷代國都之圖
권근 의, 1402년, 채색 필사본(일본 류큐대학 소장본의 모사본), 158.0×168.0cm,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우리나라 지도 제작의 역사는 삼국 시대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하지만 현재 남아 있는 지도는 조선 시대 이후의 것들이다. 현존하는 고지도 가운데 가장 오래된 지도는 1402년에 제작된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이다. 이 지도는 그 당시에 제작된 세계 지도가

운데 동서양을 막론하고 가장 뛰어난 세계 지도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다. 지도를 보면 우리나라의 영토가 아프리카 대륙보다 더 크게 그려져 있다. 이는 중국에 버금가는 문화 국가로서의 자부심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팔도총도 八道總圖
16세기, 목판본, 28.5×34.0cm,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동국대전도 東國大全圖
정상기, 18세기 중엽, 채색 필사본, 272.7×147.5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해좌전도 海左全圖
1850년대, 목판본, 105.9×61.2cm,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우리나라의 영토가 가장 명확하게 그려진 것은 조선 전도에서 볼 수 있다. 15세기에는 국토의 측량을 기초로 과학적인 지도 제작의 기틀이 마련되었다. 조선 전기의 대표적인 전도로 1530년 간행된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수록된 「팔도총도」를 들 수 있다. 이 지도는 지리지를 보완하는 부도(附圖)의 형식을 띠고 있어 수록된 내용이 간략하다.

18세기 중엽에는 조선 후기 지도 역사에서 분수령이 되는, 정상기의 「동국대전도」가 제작되었다. 「동국대전도」는 약 42만분의 1의 지도로 백리척(百里尺)이라는 독창적인 축척이 사용되었다. 백리척은 100리(40km)를 1척으로 나타내는 축척 표기법이다.



대동여지도 大東輿地圖
김정호, 1861년, 목판본, 각종 30.5×171.5cm(총 22층),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대동여지도 목판본



대동여지도가 접혀 있는 형태

조선 시대의 영토는 고산자 김정호의 「대동여지도」에 이르러 완결된 형태로 묘사되었다. 「대동여지도」는 전국을 22층으로 나누고 각 층을 접어서 만든 22개의 지도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첩은 자유롭게 펼쳐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필요하면 몇 첩을 연결시켜 볼 수 있게 만들어졌다.

전통적인 지도 제작은 1876년 개항과 더불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다. 교육용 교과서로 집필된 『대한지지』나 『대한신지지』에는 경위선 좌표 체계에 기반한 전도가 수록되어 있다. 특히, 장지연의 「대한전도」에는 당시 우리 민족이 많이 거주하고 있던 북간도가 우리의 영토로 그려져 있다. 우리의 영토를 그리고자 했던 이러한 노력은 우리 영토가 1910년 일본에 강제로 병합되면서 단절되었다.

고지도에 나타난 동해와 독도



『아국총도』의 동해 부분



『해략전도』의 울릉도, 독도 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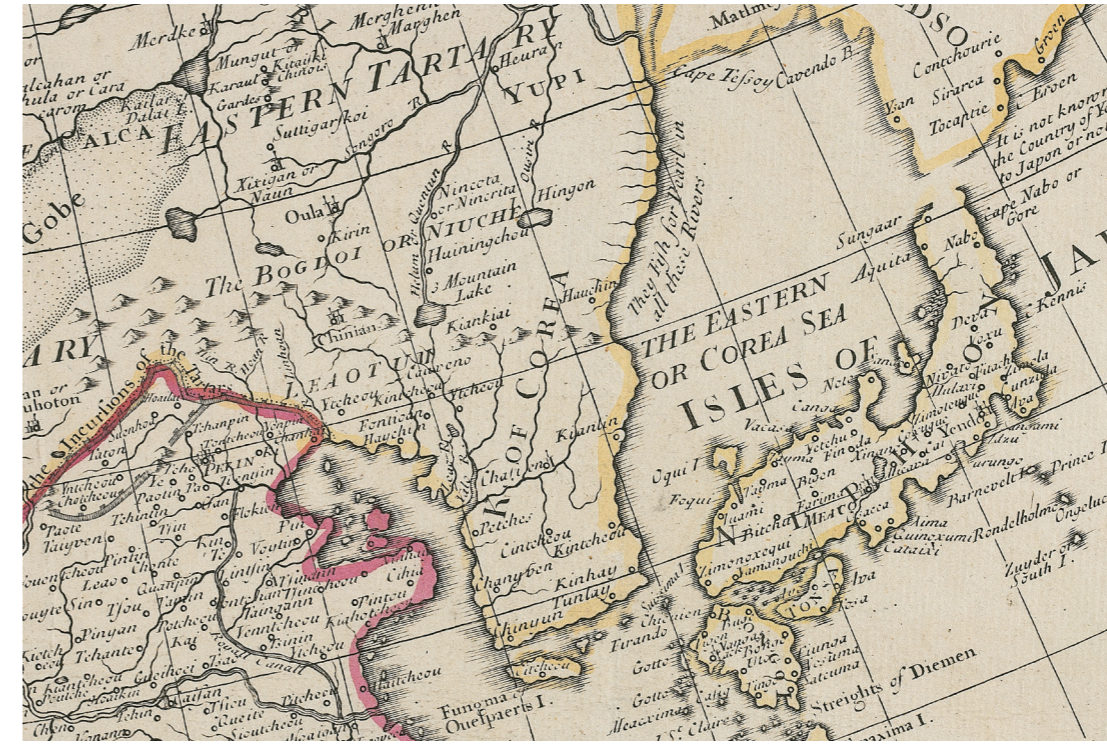
한반도 동쪽의 바다 이름인 동해와 우리의 소중한 영토인 독도는 고지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동해라는 명칭은 고구려의 광개토태왕릉비를 비롯하여 『신증동국여지승람』과 같은 다양한 문헌 자료에서 볼 수 있으며 일부 고지도에도 수록되어 있다. 고지도에 표기된 동해 지명은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의 『아국총도』에서 분명하게 볼 수 있으며, 지도에는 '동해'가 '서해', '남해'와 더불어 바다에 표기되어 있다. 독도가 그려진 군현 지도책(마을의 모습을 그린 지도)으로 18세기의 『조선지도』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동해 지명이나 독도는 서양의 고지도에도 표현되어 있다. 서양 지도에서 조선이 표현되기 시작한 것은 16세기 이후로 볼 수 있다. 이의 대표적인 사례가 영국의 세닉스(Senex)가 1720년에 제작한 「아시아 지도」이다. 이 지도는 1705년 제작된 프랑스 드릴(Delisle)의 지도를 영어로 번역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모습은 실제보다 크게 그려져 있는데, 남북보다는 동서로 퍼져 있는 모습이다. 국호는 'K(ingdom) of Corea'로 표기되어 있다. 동해는 'The Eastern Sea(동해)' 또는 'Corea Sea(한국해)'로 표기되어 있다.

1735년 당빌(D'Anville)의 「조선왕국전도」에서 조선이 처음으로 상세하게 표현되었고, 울릉도와 우산도도 동해안에 표기되었다. 당빌의



『조선지도』의 울릉도 지도



세닉스의 「아시아지도」의 한국 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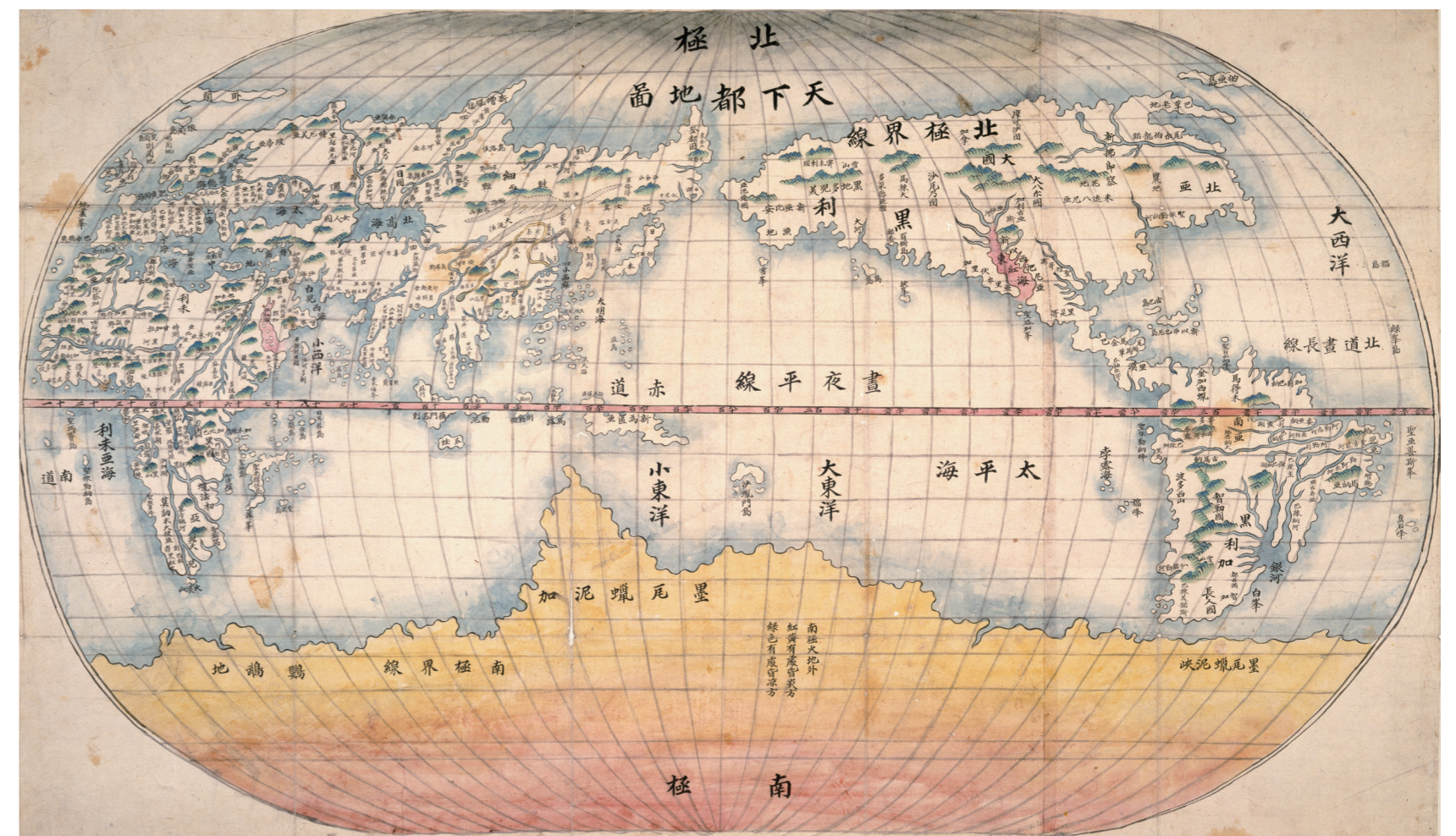
당빌의 「조선왕국전도」의 울릉도, 독도 부분



다카하시의 「일본변계략도」의 동해 부분

『중국지도첩』에 수록된 「조선왕국전도」에는 서쪽에 우산도(독도)에 해당하는 'Tchian-chan-tao', 동쪽에는 울릉도에 해당하는 'Fan-ling-tao'라는 두 개의 섬이 그려져 있다. 당빌의 지도는 이후 많은 지도에 영향을 미쳐 프랑스뿐만 아니라 영국, 독일의 지도에서도 울릉도, 우산도의 표현을 볼 수 있다.

독도를 대한민국의 영토로 표현한 것은 일본에서 제작된 지도에서도 확인된다. 1894년 다카하시 아키요시가 제작한 「신찬조선국전도」에는 울릉도와 독도가 죽도(竹島)와 송도(松島)로 표기되어 있고, 한반도와 동일한 색으로 칠해져 있다. 이는 일본에서 독도를 대한민국의 영토로 인정하고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된다. 울릉도, 독도와 더불어 동해 명칭도 일본의 지도에서 볼 수 있다. 대표적인 지도는 다카하시 가게야스가 1809년에 제작한 「일본변계략도」이다. 이 지도는 일본 열도를 아시아 지역의 중심에 위치시킨 최초의 관찬 지도이다. 이같은 고지도들 대부분이 조선해라는 지명으로 동해를 표기하고 있는데, 이는 동해(조선해)가 우리나라의 바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천하지도 天下都地圖 18세기 후반, 채색 필사본, 60.0x102cm,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우리나라 지역 구분

지역은 크게 행정적인 측면과 지리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행정적인 측면은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지역을 나누는 것이다. 지리적 측면은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고유한 특성을 바탕으로 지역을 나누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역을 나눌 때 행

정적인 측면과 지리적인 측면을 복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산과 강의 분포는 생활권 단위의 지리적 구분의 근간이 되었고, 고려 시대 이후 정립된 행정 구역은 현재 우리나라 행정 구역의 근간이 되었다. 대한민국의 전통적 지역 구분에서 각 지역

명칭은 고려 시대와 조선 시대의 행정 구역과 관련이 깊다. 전통적인 지역 구분은 여전히 우리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행정 구역의 변화에 따라 각 지역이 의미하는 공간적 범위는 변하였다. 대한민국을 나누는 지역의 가장 큰 단위는 북부, 중부, 남부이다. 일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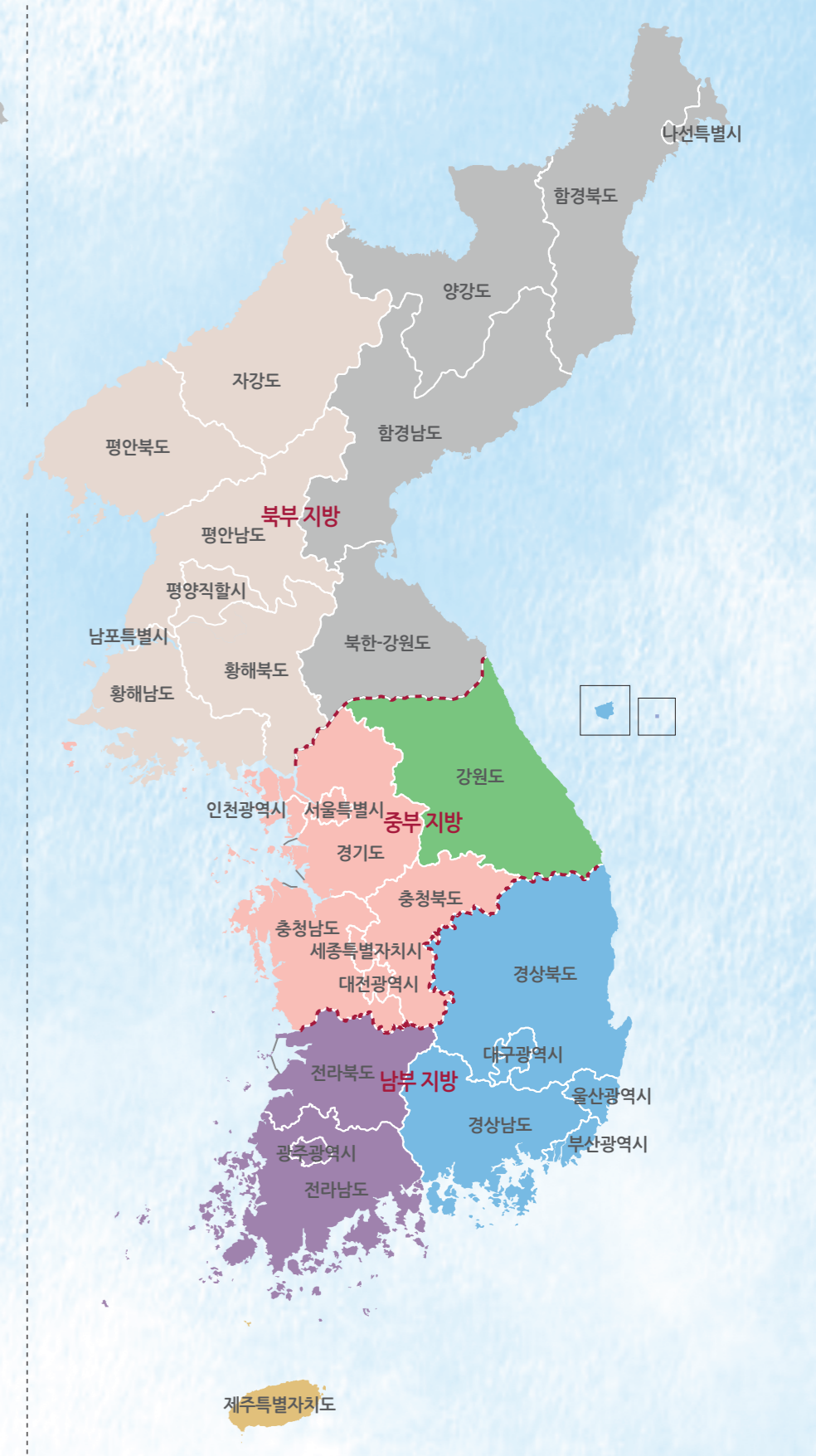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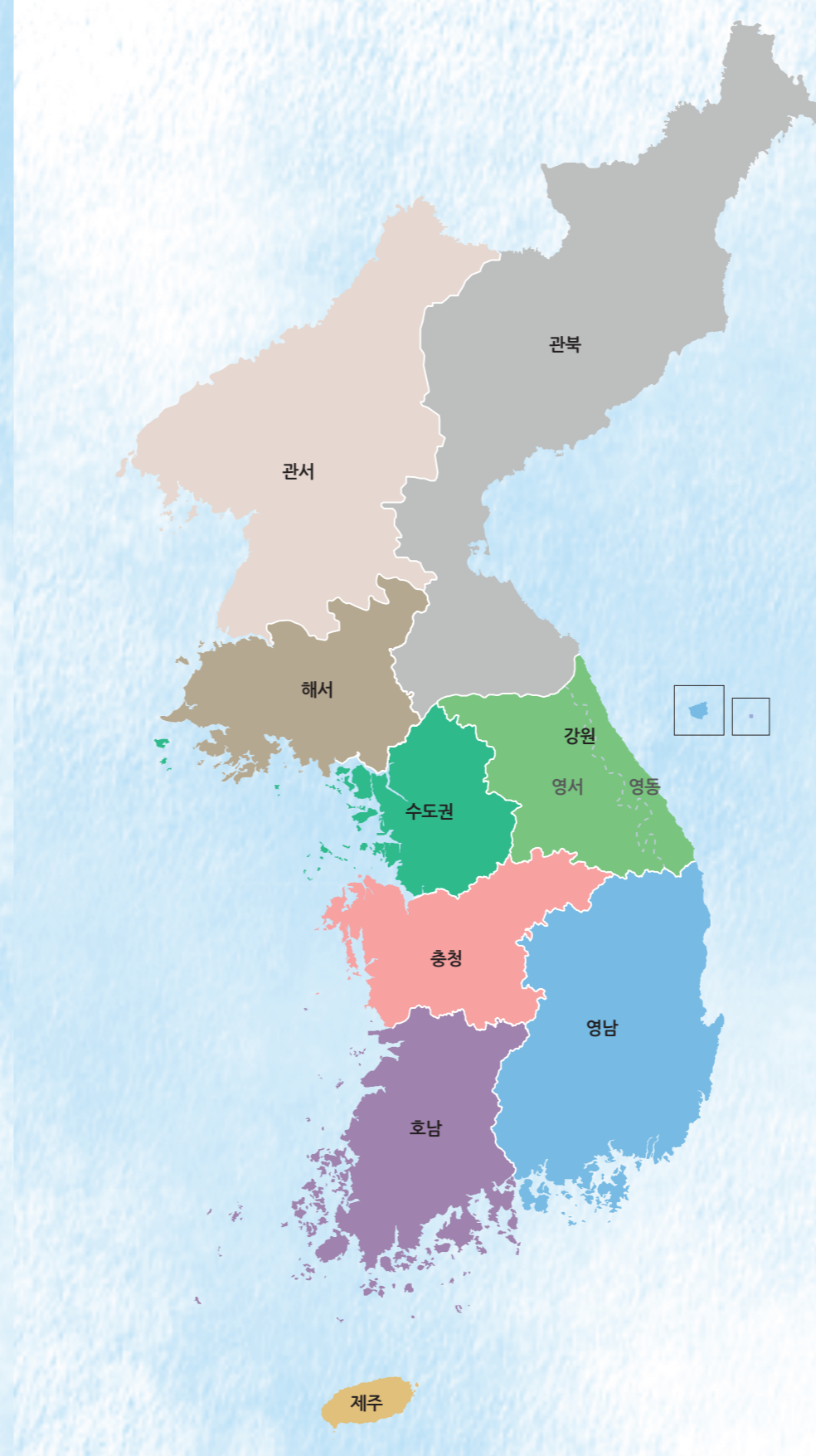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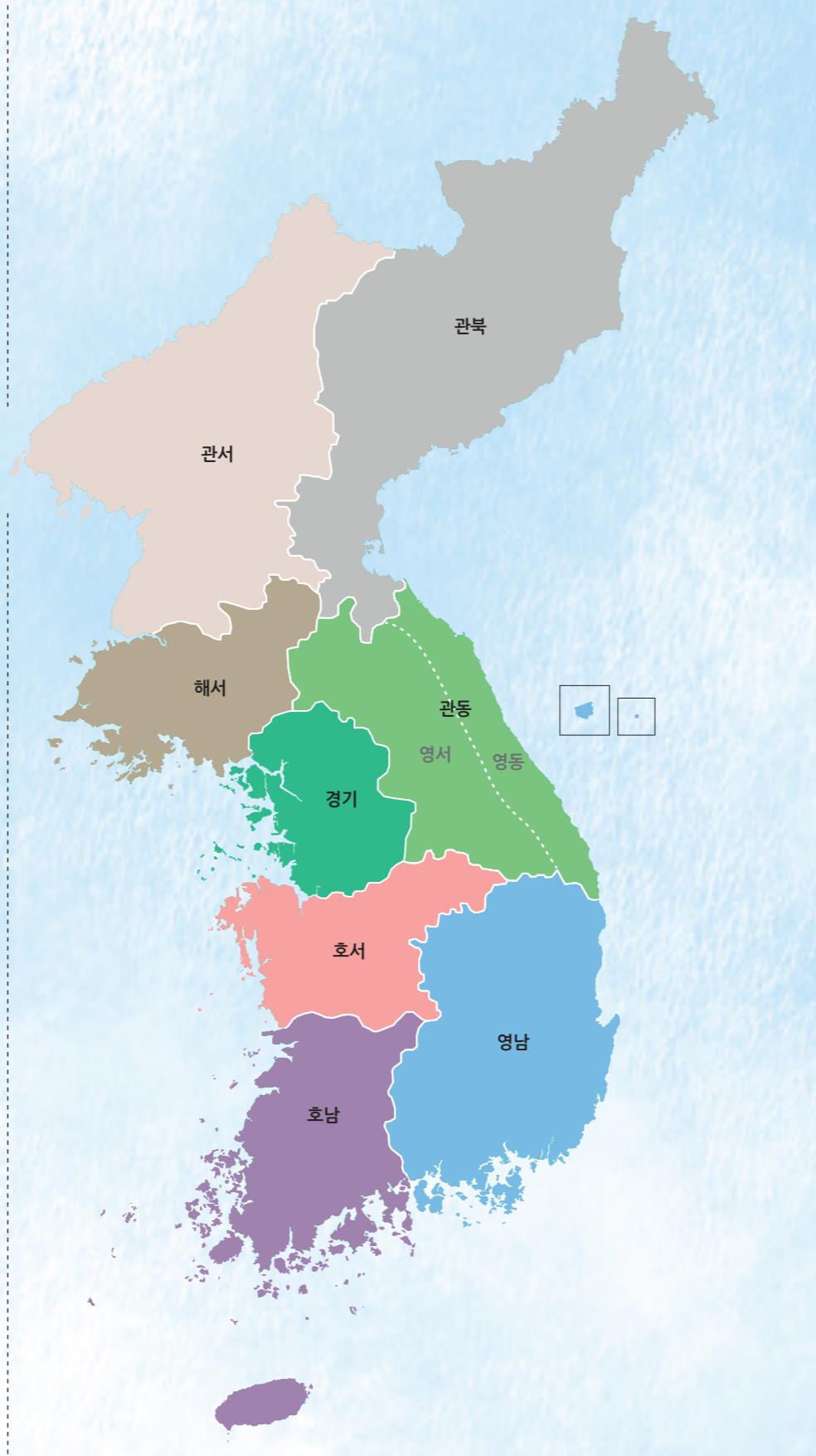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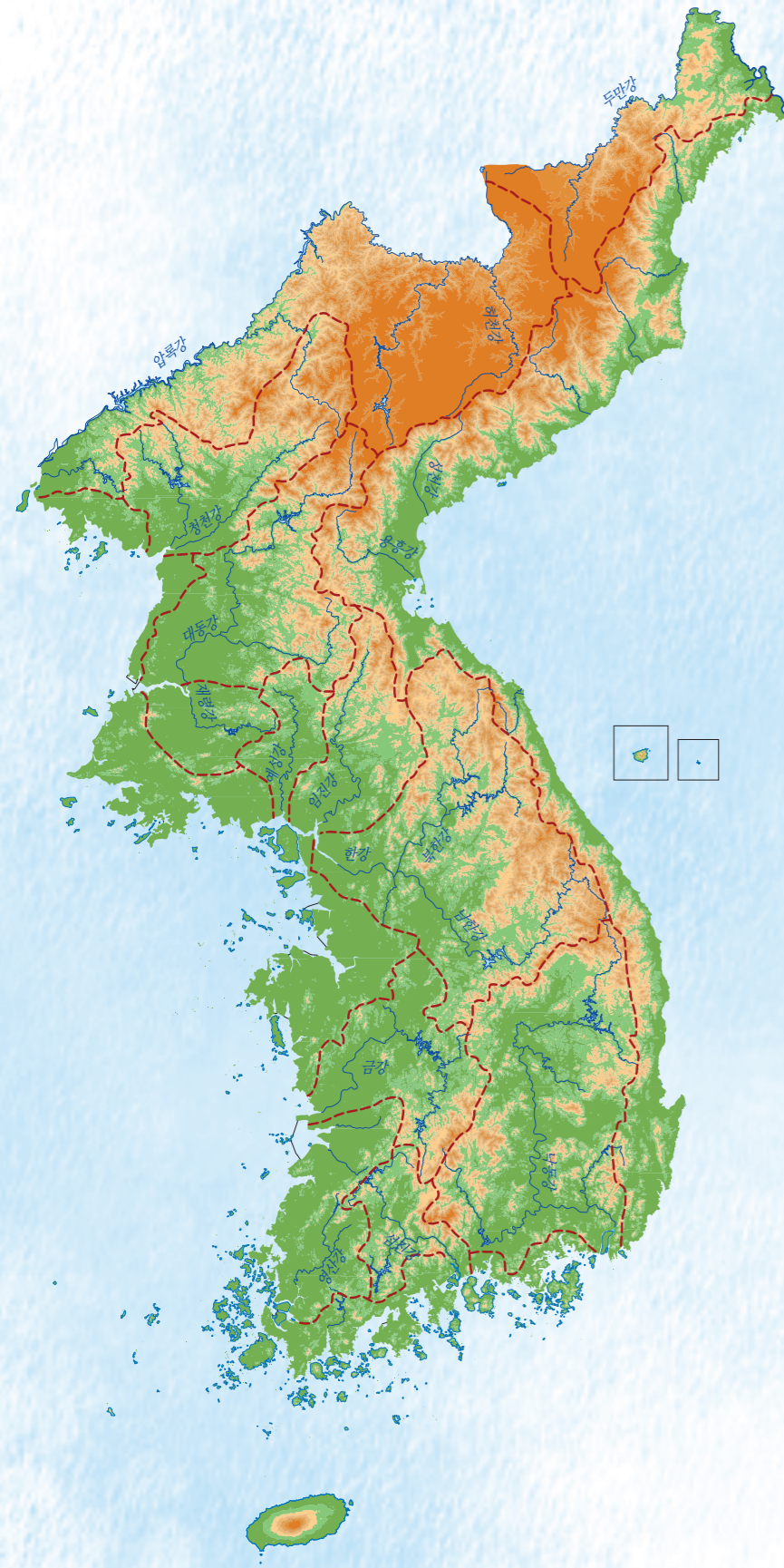
적으로 북한 지역 전체가 북부 지역에 해당하며, 수도권과 충청, 강원 지역은 중부 지역에 포함된다. 호남, 영남, 제주 지역은 남부 지역으로 구분된다.

주요 하천 기준 유역 구분도

전통적 지역 구분(조선 시대)

현대의 지역 구분 I

현대의 지역 구분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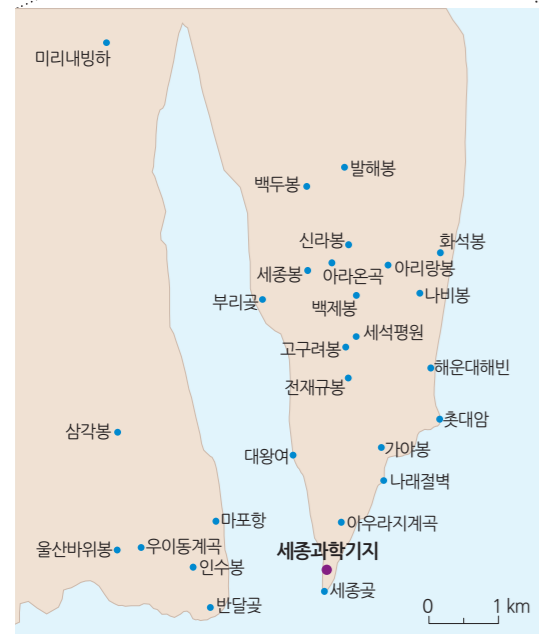
남극과 북극, 연구와 탐험의 땅

극지와 해양에 대한 연구와 탐험은 인류가 공유하고 있는 지구상 공동의 영역에 대한민국의 과학 영토, 자원 영토를 확장하는 도전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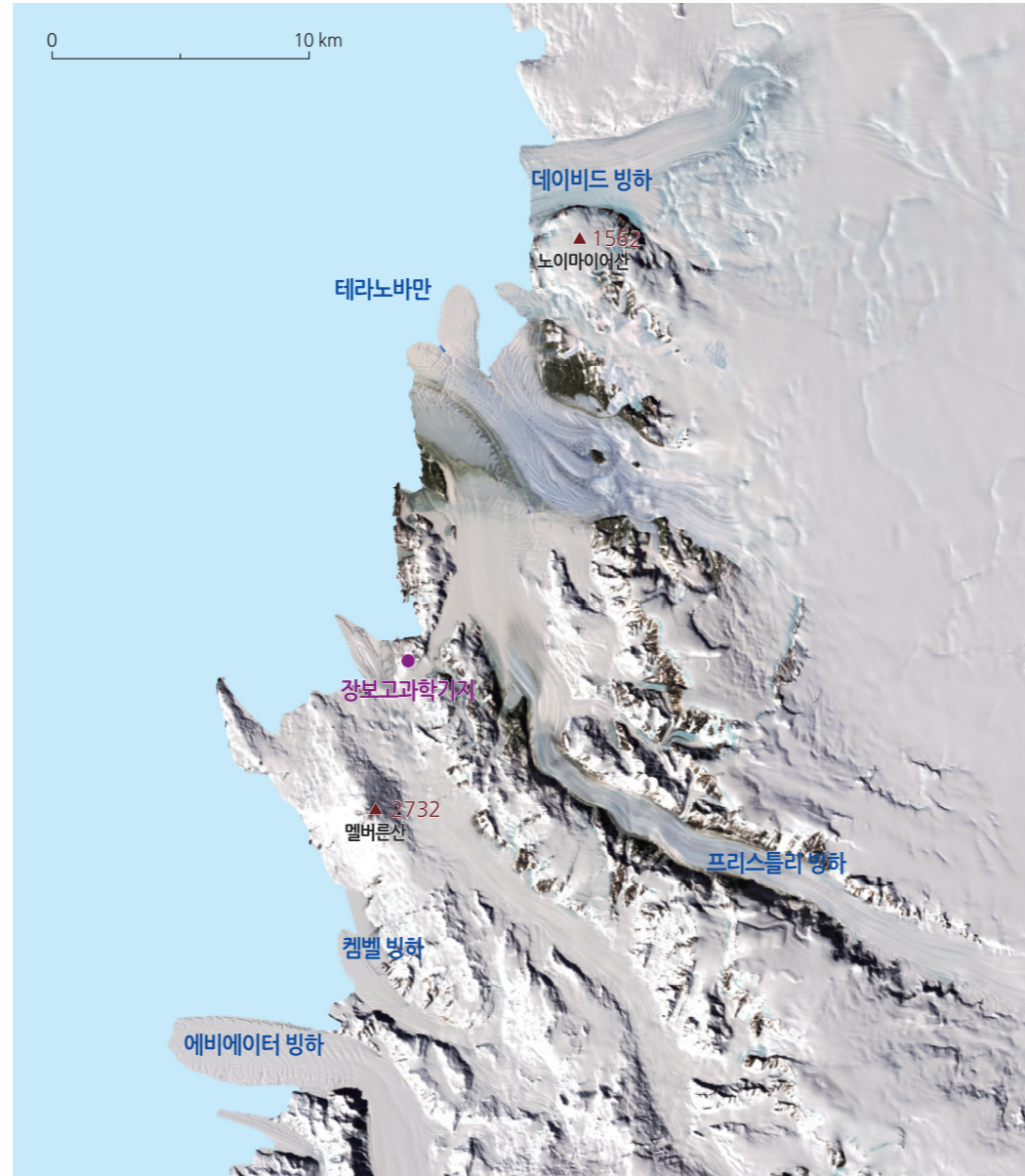
과정이다. 또한 전 지구적 차원에서 나타나는 기후 변화와 지구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국제적 협력의 과정이기도 하다. 대한민국의 극지

연구와 탐험은 1988년 상주 과학 기지인 남극 세종과학기지 건설을 통하여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남극 세종과학기지



남극 장보고과학기지



북극 다산과학기지는 2002년 북극의 환경과 자원 연구를 위해 개설하였다. 북극권 동

토층 관측과 측정, 온실 효과를 유발하는 기체의 순환 및 대기 중 미세 입자 분석, 북극권

토양 환경 및 생태계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북극 다산과학기지



북극 다산과학기지 기지촌



북극 다산과학기지

2009년에는 국내 최초의 극지 연구용 쇄빙선인 아라온호가 건조되어 항해를 시작하였다. 아라온호는 남북극 결빙 해역에서의 독자적인 극지 연구를 수행하고 항로를 개척하며, 남북극 과학기지에 대한 보급 역할을 하고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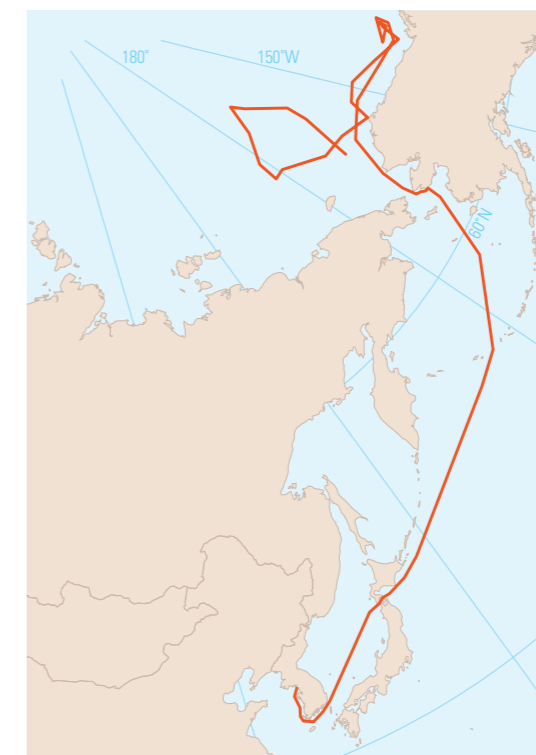
다. 또한 2012년에는 북극 이사회의 허가를 얻어 북극 항로와 자원 개발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2013년에는 아라온호가 수집한 해저 지형 자료를 활용하여 '돌고래 해저 구릉군'과 '꽃

신 해저늘'이라는 우리말 남극 해저 지명 2건을 국제 수로 기구(IHO)에 등록하였다. 2014년에는 남극 장보고과학기지 주변 해역의 잠정판 해도를 제작·발간하였다.



아라온호 남극 항해 경로



아라온호 북극 항해 경로




아라온호

우리나라의 세계 유산


우리나라의 세계 유산은 수도권과 경상북도에 주로 위치하고 있다.

세계 유산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무덤군에는 청동기 시대의 지석묘군, 고구려 시대의 적석총, 신라와 조선 시대의 왕릉이 포함된다. 건축물에는 자연 경관을 배경으로 건축물과 조경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창덕궁, 목조 건물로 실내의 통풍, 방습, 온도 등을 적절히 유지하여 대장경판을 현재까지 온전하게 보존하고 있는 해인사 장경판전이 있다. 성곽은 서울의 남동쪽에 위치하고 있다. 남한산성과 수원 화성은 북쪽의 개성, 서쪽의 강화와 함께 네 방위에서 왕도를 방위하던 성으로서의 역사적 의의와 함께 축성술의 학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 밖에도 한국의 전통을 보존한 역사 마을과 종묘 같은 건축물이 있다. 전통 마을인 하회 마을과 양동 마을에는 현재도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조선 시대의 사회적 구조와 유기적인 전통을 엿볼 수 있다. 종묘는 건축물의 예술적 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왕가를 기리는 의례와 음악, 무용 등의 전통이 이어져오고 있다. 역사 유적 지구는 신라 시대와 고려 시대의 수도에 위치하고 있다. 2015년에는 백제 역사 유적 지구가 등재되었다.



1 해인사 장경판전(1995년 등재, 장경판전 외관)
경상남도 합천군 소재

해인사 장경판전은 13세기에 만들어진 세계적 문화유산인 고려 대장경판 8만여 장을 보존하는 보고로서, 해인사의 현존 건물 중 가장 오래된 건물이다. 원할한 통풍과 방습, 실내 적정 온도 유지, 판가의 진열 장치 등이 매우 과학적이며 합리적으로 되어 있어 고려대장경판이 지금까지 온전하게 보존되고 있다.



2 석굴암과 불국사(1995년 등재, 불국사)
경상남도 경주시 소재

불국사는 토함산 서쪽에 위치하고, 동쪽의 석굴암과 쌍을 이루고 있으며, 신라 고도인 경주의 상징적인 건축물이다. 석굴암은 건축, 수리, 기하학, 종교적 열정, 예술혼이 총체적으로 실현된 기념비적인 사원이다.




3 종묘(1995년 등재, 종묘)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

조선 시대 왕가의 조상을 모시는 유교 사당이다. 건축물 배치 원리에 따라 좌청룡에 해당하는 궁궐의 동쪽에 세워졌다. 부속 건축물로는 영녕전, 공신당, 칠사당 등이 있다.



4 창덕궁(1997년 등재, 인정전)
서울특별시 중로구 소재

창덕궁은 태종 5년(1405) 경복궁의 별궁(이궁)으로 지어진 궁궐로, 임진왜란 때 소실된 것을 선조 40년(1607)에 중건하기 시작하여 광해군 5년(1613)에 재건되었다. 창덕궁은 1610년 광해군 때 정궁으로 사용한 후부터 1868년 고종이 경복궁을 중건할 때까지 258년 동안 역대 제왕이 정사를 보살피 온 법궁이었다.




5 수원 화성(1997년 등재, 화서문)
경기도 수원시 소재

수원 화성은 정조 때 축성된 평산성이다. 도성 남쪽을 방위하는 기능과 함께 성내의 행궁을 수호하는 역할을 하였다. 동양 철학과 서양 건축 기술이 반영된 대표적 성곽이다.




6 고창·화순·강화 고인돌 유적(2000년 등재, 고창 고인돌)
전라북도 고창군, 전라남도 화순군, 인천광역시 강화군 소재

청동기 시대의 돌무덤인 고인돌은 세계적으로 한반도에 가장 많이 분포한다. 또한 고인돌은 선사 시대 문화상을 파악할 수 있고, 사회 구조, 정치 체계를 물론 당시 사람들의 정신 세계를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선사 시대 연구의 중요한 자료가 되는 유적이다.



7 경주 역사 유적 지구(2000년 등재, 안압지 동궁)
경상북도 경주시 소재

경주 역사 유적 지구는 신라 천년의 고도(古都)인 경주의 역사와 문화를 고스란히 담고 있다. 이곳은 불교 미술의 보고인 남산 지구, 천년 왕조의 궁궐터인 월성 지구, 신라 왕을 비롯한 고분군 분포 지역인 대동원 지구, 신라 불교의 정수인 황룡사 지구, 왕경 방어 시설의 핵심인 산성 지구로 구분되어 있다.




8 고구려 고분군(2004년 등재, 동명왕릉)
평안남도, 평안직할시, 남포특별시, 황해남도 소재

고구려 고분군은 고구려 시대의 무덤군이다. 63기의 무덤이 대동강 하류 양안의 넓은 범위에 걸쳐 8개 고분군을 이루고 있다. 무덤의 양식이나 내부 벽화에는 당시 고구려인들의 생활상이 담겨 있다.



9 제주 화산섬과 용암 동굴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거문 오름 용암 동굴계는 약 30만 년~10만 년 전 거문 오름으로부터 흘러나온 용암류가 지형 경사를 따라 해안까지 흘러가는 동안 형성된 용암 동굴 무리이다. 김녕굴, 만장굴, 용천동굴, 당치물동굴, 벵뒤굴로 구성되어 있다.




10 성산 일출봉 응회구(2007년 등재)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성산 일출봉(해발 180m)은 약 5천 년 전 얽은 바다에서 일어난 화산 활동으로 만들어진 분화구이다. 이는 지하에서 올라온 마그마와 물이 만나 격렬하게 반응하면서 분출된 화산재가 쌓여 형성되었다.




11 한라산 천연 보호 구역(2007년 등재)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한라산 천연 보호 구역은 화산 활동에 의해 생성된 순산 화산체인 한라산에 지정된 세계 자연 유산이다. 이 구역에는 백록담 분화구, 수많은 오름 등 다양한 화산 지형이 분포한다.




10 조선 왕릉(2009년 등재, 동구릉 중 권원릉)
서울특별시, 경기도, 강원도 소재

조선 시대의 왕과 왕비의 무덤이다. 서울 시내(경릉-현인릉-선정릉-태강릉-의릉), 서울 동쪽(동구릉-홍유릉-광릉-사릉-영녕릉), 서울 서쪽(서오릉-서삼릉-온릉-파주 상릉-파주 정릉-김포 장릉-용건릉), 강원도 영월(장릉)에 나뉘어 있다.



11 양동 마을(2010년 등재)
경상북도 경주시 소재

양동 마을은 월성 손씨와 여강 이씨의 두 가문에 의해 형성된 유서 깊은 양반 마을이다. 아름다운 자연환경 속에 수백 년 된 기와집과 나지막한 돌담길이 이어지며, 전통문화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서 마을 전체가 중요 민속 자료로 지정되었다.




12 하회 마을(2010년 등재)
경상북도 안동시 소재

마을 이름을 하회(河回)라 한 것은 낙동강이 'S' 자 모양으로 마을을 감싸 안고 흐르는 데서 유래되었다. 풍산 류씨가 주류를 이루어 살고 있는 이 마을은 양반과 서민의 생활이 공존하고 있으며, 민족적 전통과 건축물이 잘 보존되어 있다.



12 개성 역사 유적 지구(2013년 등재, 왕건릉)
황해남도 개성시 소재

개성 역사 유적 지구는 고려 시대의 수도인 개성의 역사적 유적지이다. 이곳에는 개성 성곽, 개성 남대문, 개성 첨성대, 만월대, 고려 성균관, 송양서원, 선교교, 표충사 및 왕건릉, 공민왕릉, 명릉 등 7개의 능이 분포하고 있다.



13 남한산성(2014년 등재, 성곽 남문)
경기도 광주시 소재

조선 시대의 왕도를 남동쪽에서 방위하던 산성이다. 높고 험준한 지형을 이용하고 있어 방어에 유리하다. 병자호란 때 청군의 주력 부대에 맞서 치열하게 싸웠던 곳이다.



14 백제 역사 유적 지구, 공산성(2015년 등재)
충청남도 공주시 부여군, 전라북도 익산시 소재

백제의 옛 수도였던 3개 도시에 남아 있는 유적은 중국, 일본 등 이웃한 지역과의 빈번한 교류를 통하여 문화적 전성기를 구가하였던 고대 백제 왕국의 후기 시대를 대표한다. 백제 역사 유적은 중국의 도시 계획 원칙, 건축 기술, 예술, 종교를 수용하여 백제화한 증거를 보여 주며, 이러한 발전을 통해 이룩한 세련된 백제의 문화를 일본 및 동아시아로 전파한 사실을 증언한다.